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정책 제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2017년 5월 12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회에 걸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개최한 「2017년 간호정책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간호정책과 토론이 도출되었고 이를 새 정부에 바라는 간호정책으로 제안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국내 주요 간호대학장 및 교수, 대학병원 간호부서장,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전문가, 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의 기초발제에는 스코틀랜드 Queen Margaret University 교수이자 WHO 보건의료인력정책 전문가인 James Buchan 박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와 김진현 교수가 참여했다. James Buchan 박사는 「Nursing Staffing: Lessons from an

International Review」라는 주제로 주요 국가들의 간호사 인력배치 현황 및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조성현 교수는 간호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간호사 수급과 적정 배치」에 대해 기초발표를 이어나갔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고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병원간호사회, 그리고 대한간호정우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간호정책과 간호전문직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각 단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할 간호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새 정부가 국민이 기대하는 질 높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박현애 교수 : 세계보건의료정보학술원 초대회원 선출

우리대학 박현애 교수가 2017년 6월 6일 발표된 세계보건의료정보학술원(International Academy of Health Sciences Informatics)의 초대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세계의료정보학회(International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에서 1단계로 전세계 6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보학분야 전문가 200명을 추천받았다. 다음 단계로 1단계에서 추천 받은 200명의 전문가들이 동료 평가를 통해 보건의료정보학분야 글로벌 리더 120명을 초대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하였다.

박현애 교수는 아태지역에서 선출된 20명 회원 중 한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출되었다. 세계보건의료정보학술원은 앞으로 보건의료정보학 분야 지식 교환, 교육 및 훈련 제공, 정책 개발 등에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선출된 학술원 회원들은 IAHSI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이명선 교수 :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2017년 6월 15일 우리대학 이명선 교수가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10명의 교수를 「2017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식 공유의 활성화 기회 증진을 위해 시상 횟수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연 2회)로 확대하였다. 이명선 교수는 암환자를 위한 간호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학술적으로 대한종양간호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다학제적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본과 중국, 인도 등 9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종양간호학회 초대회장으로, 암 발생과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간호사들간 국제적 상호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한질적연구학회를 창립하여 11년간 회장으로 역임하며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질적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상에 앞서 6월 8일에는 「질적연구와 함께 한 간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학술연구상 수상기념 특별강연이 개최되어 간호대학 교수들과 학부 및 대학원생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6월 15일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시상식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김정은 교수 : 의료정보학 협동과정 주임교수 임명

우리대학 김정은 교수가 2017년 9월 의료정보학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다. 의료정보학 협동과정은 임상학과 기초의과학 분야의 방대하고 복잡한 의료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응용에 관한 정보학적 이론과 컴퓨터 공학적 방법론과 임상의학 및 기초의학적 응용을 위한 다학제적 통합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다학제적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학제간 융합연구를 촉진하여 의학의 발전과 인류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함을 목표로 하며, 의대, 치대, 간호대, 공대, 인문대 교수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정은 주임교수의 임기는 2017년 9월부터 2년이며, 우리대학에서는 김정은 주임교수를 비롯하여 박현애 교수가 협동과정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정은 주임교수의 임기는 2017년 9월부터 2년이며, 우리대학에서는 김정은 주임교수를 비롯하여 박현애 교수가 협동과정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이명선 교수 :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2018년 2월 우리대학 이명선 교수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특집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지난 23년 반 동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간호대학 3학년 학부생인 박지은, 장수연, 정인정 학생이 진행하였다.

이명선 교수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 학력

1971~1975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1988~1993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Doctor of Nursing Science

○ 주요경력

1994 ~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02 ~ 2013	대한질적연구학회 초대회장
2007 ~ 2008	대한중양간호학회 회장
2012 ~ 2014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소장
2014 ~ 2015	Asian Oncology Nursing Society 초대회장

1. 올해로 24년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간호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요?

처음 간호대학에 들어오게 된 건 내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여자들이 주로 가는 대학으로는 가정대, 사범대, 그리고 간호대가 있었는데, 간호대가 학비가 가장 싼다. 아버지가 선생님이라 면담하고 와서 간호대학으로 원서를 썼다고 말씀하시더라. 지금이야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여성이라도 자유로운데, 예전에는 많이 수동적이었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간호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재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때에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하긴 했지만 단순히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남편의 유학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때가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야 돈이 부족해 미국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지만, 남편이 교수가 된 이후, 그동안 꿈꾸던 현모양처가 될 수 있었다. 가정주부로 집에서 애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것이 처음 몇 개월은 재밌었지만 이제 꿈을 다 이뤘다는 생각에 '이젠 뭘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공부를 더 해서 박사 학위를 따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남편에게 물어보니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당시에는 여자가 공부한다고 하면 집에서 애나 키우지 무슨 공부냐고 하는 사상이 팽배했는데 그렇게 말해주게 지금도 매우 고맙다. 그렇게 간호대학원을 들어갔고, 대학원에서 제2의 인생이 펼쳐졌다고 생각한다.

2. 지난 1학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 질적 연구에 매진하시며 질적간호연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셨는데, 간호연구 분야 중에서도 질적연구를 주로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질적연구를 하게 된 건 대학원에서였다. 대학원을 오기 전엔 사실 당연히 양적연구를 하게 될 줄 알았다. 미국 학생들에 비해 수학 같은 것도 잘했으니까.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당시 미국 간호계에서 질적연구 바람이 불면서 질적연구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지금도 과제로 읽었던 논문이 기억이 난다. Cheryl Tatano Beck의 「Postpartum Depression」이라는, 산모들의 산후우울증 경험을 다룬 것이었는데 정말 재밌었다. 나는 이미 출산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우울증은 없었다. 그런데 그 논문을 읽어보니 사례들이 정말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내가 환자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산을 해봤는데도 논문 안의 사례들이 이렇게 새로운데, 하물며 암환자 같은 경우 전혀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렇게 질적연구를 접하게 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졌다. 사회생활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현모양처로서 가정에만 신경을 쓰다가 더 넓은 세계를 접하게 되어 더 재밌었던 것 같다. 대학원 다닐 때에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느낄 정도였다.



6월 8일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기념 특별강연

3. 교수님께서 질적연구를 주로 해오시면서 다학제적 학술 교류 활동들도 활발히 해오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다학제적 연구 및 학술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근거이론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다보니 질적연구에 대한 여러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2002년에 대한질적연구학회를 창립했고 10년 이상 회장직을 맡으면서 질적연구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싶었다. 이야기분석, 대화분석, 담론분석 등 지금까지는 잘 할

용되지 않았던 방법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견해, 예를 들면 페미니즘까지도 흡수한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우연히 인문학과 연결이 되었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강창우 교수님과 함께 협력한 2년간의 대화분석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과 이론을 다루는 인문학, 거기에 의학, 컴퓨터 공학, 사회복지학이 함께 하여 5년의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된 것이 「질병 체험 이야기(narrative)」라는 과제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당뇨, 위암, 유방암, 우울증, 치매, 호스피스 6개 분야의 질병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 다른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환자들의 질병체험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따뜻하게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4. 교수님께서 대한중앙간호학회와 대한질적연구학회 회장을 10년 이상 지내시고, 아시아중앙간호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들도 활발히 해오셨는데, 여러 단체의 리더 역할을 맡아오며 느끼셨던 소회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2000년에 현재 이은옥 명예교수님께서 대한중앙간호학회 초대회장이 되셨고 나는 제 3대 회장이 되어, 학회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썼다. 전문간호사제도가 생겨나면서 중앙전문간호과장장 협의회를 발전시키고, 전국에 암센터가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와 맞물려 전국암센터 간호부서장 협의회를 만들어 암상에 있는 중앙간호사들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체제개편 이외에도 회원들의 국제적인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즉 이들이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중앙간호학회(Oncology Nursing Society) 학술대회에 우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 견학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또 중요한 일이 있다. 의과대학 노동영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비너스회를 만드는 데 동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대한중앙간호학회의 회장으로서, 한국유방암학회, 한국유방진강재단, 그리고 미국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과 공동주최로 다학제적 학술대회인 세계유방암학술대회(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GBCC)의 설립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7년 제 1회 GBCC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인뿐 아니라 유방암 환자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환자-의료인이 더욱 신뢰하며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9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중앙간호학회의 초대회장을 맡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암환자들이 중앙간호사로부터 과학에 기초한 고품질의 간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암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학회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듯 간호계의 리더로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후배들의 리더십 향상에 주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후속 세대들은 아

시아 지역의 리더를 넘어 세계의 리더가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정작 후배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면서 후배들의 힘 북돋우기에 더욱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5. 주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을 해 오셨는데 유방암 환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유방암예방전문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방암 환우회인 비너스회는 환자들끼리의 모임이다 보니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암환자들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일반인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갇힌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유방암 환자들을 일반 여성을 교육하는 강사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었다. 이들을 교육시켜 일반인들에게 유방암예방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이들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에는 당시 전라남도 지사였던 이낙연 총리에게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한국유방암예방전문강사는 24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수 내용은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내용이다. 유방암 환자는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자가 검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그러니 유방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그런 사람들에게 유방자가검진 방법을 알리는 것이 주 교육 내용이다. 또한 이는 암환자의 편견을 깨는 데도 일조한다. 암 환자가 사는 세계와 일반인이 사는 세계는 따로 있다. 한 번 암이 발병하면 암 환자들이 사는 세계가 분리될 정도로 사람들의 편견이 심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그 편견을 깨고,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유방암 환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페미니즘도 여기 들어간다. 이 협회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강사들에게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던 일, 그리고 이 일(예방전문강사)을 시작할 때의 각오를 생각해보라고 격려한다. 그 땀 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면서. (웃음)

6.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란 무엇인가요?

앞으로 간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호를 과학(Science)이라고 한다. 학부 때 배우는 과학은 주로 신체적 간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의 원래 목적인 전인간호, 다시 말해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해 주려면 간호는 신체적 영역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역도 포함해야만 하는 돌봄 과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여기서 좀 더 돌봄을 강조하여 ‘따뜻한 돌봄 과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픈 인간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자의 질병 체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환자와 공

감으로 교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진정으로 환자가 원하는 전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특히 여성에게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직에 있는 여성들은 수동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질적연구를 활용하는 후속세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질적연구를 통하여 환자의 경험을 체험해보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나가는 후속세대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

7.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먼저 걸어오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직까지 독점과 불평등속에서 간호만의 독립성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내 일은 아니더라도 간호계 전체를 생각해서 비전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간호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열정을 가지고 일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방향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방향을 하는 것은 좋다. 방향을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방향은 하라.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방향하라. 충분한 방향을 한 뒤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간호대학 소식 02

연구실 탐방 소비자건강정보학 연구실(Consumer Health Informatics & Communication Laboratory: CHIC lab)

김정은 교수를 지도교수로 구성된 소비자건강정보학 연구실(Consumer Health Informatics & Communication Laboratory, CHIC Lab)은 간호정보학 그리고 의료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인 연구실이다.

CHIC Lab은 최적의 건강상태로부터 최악의 질병상태 사이의 건강 연속선상에 있는 '건강인, 건강관심인, 환자' 들로 하여금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발견, 증상전달, 진료참여, 추후관리, 존엄사 및 사후관리' 라는 모든 여정과 경험(Patient Journey & Patient Experience)에서 환자 스스로 스마트 환자(Smart Patient)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의 건강관리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간호학, 공학, 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국적은 한국,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로 다양하다. 현재 박사 9명, 석사 7명, 석박통합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실에서 약 4년 반 동안 full time을 연구원으로 지낸 학생의 경우 SCI급 논문 4편,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13회 할 정도로 활발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Part time 학생은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과 같은 임상환경 뿐만이 아니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여자간호대학 그리고 조선간호대학교 등에서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연구실 홈페이지는 www.snuchic.com이다.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ICT 기술연계 POC (Point Of Care) 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격존재 로봇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이다. POC 서비스란 실시간 현장 진료서비스로, 진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진료 관련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즉시성, 현장성, 고품질, 환자안전을 고려한 협진/교육 서비스를 말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원격존재 로봇 시스템은 국내병원과 해외 병원 또는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의 의료진이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원격으로 협진과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최종 결과물로는 의료진용 원격 협진/교육 로봇과 환자 정서케어에 위한 환자용 침상 옆 로봇이 개발될 예정이다.

두 번째 대표 프로젝트는 「미래건강의료서비스에서 자기주도적 건강관리(DIY Health Management)를 위한 헬스내비, 헬스맵, 헬스뱅크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는 미래의 이상적이고도 지속가능한 건강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헬스내비, 헬스맵, 헬스뱅크라는 주요개념에 대한 심층분석 및 기획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함으로써 미래의료서비스의 정의, 구조 및 기능, 도구, 재료를 규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의대, 법대, 음대, 생활과학대 의류학과 그리고 KAIST와 함께 어린이병원의 아동 환자의 입원 공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로봇 개발 프로젝트와 유럽의 여러 교육기관과 기업과 함께 하는 노인의 Do Aging Well을 돕기 위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또한 함께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스승의 날 모임

간호대학 소식 03

행복한 나눔

2017년에도 많은 동문들이 간호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2017년 4월 26일에는 간호대학 본관 1층 로비에서 최덕순 동문(63졸)의 발전기금 1억 원 출연을 기념하는 부조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최덕순 동문은 비록 부조제막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먼 타국에서도 고향인 대한민국과 모교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모교와 간호대의 발전을 기원하며 사랑하는 후배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부조제막식에는 최스미 학장과 임난영 간호대 동창회장, 홍여신 명예교수, 김금순 명예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최덕순 동문의 동기인 이은옥 명예교수, 강신자 동문, 김현희 동문 등이 최덕순 동문의 빈자리를 대신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동문들과 간호대학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최덕순 동문(63졸)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미국 Duke University 학장단 방문

2017년 4월 10일~12일 3일간 Duke University 간호대학 학장 Marion Broome과 Dr. Michale V. Relf, Dr. Eun-Ok Im이 우리대학을 방문하였다. 학생교류 및 상호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Duke University Academic Affairs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University of Hong Kong 학장단 방문

2017년 6월 13일 University of Hong Kong의 Dean Chia-Chin Lin, Dr. William Ho Cheung, Li, Dr. Kelvin Man Ping, Wang, Dr. Jung Jae Lee가 우리대학을 방문하였다.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과 교수 공동 연구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12월 홍콩

대학교 주관 학술대회에 본교 교수 5명을 초청하였다. 12월 18~19일에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최스미 학장, 최희승 국제교류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6명의 본교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홍콩대학교 간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Muhammadiyah Yogyakarta 교수진 방문

2017년 9월 1일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와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Muhammadiyah Yogyakarta 교수진 10명이 우리대학을 방문하였다. 최스미 학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서은영 교수의 「Education & Research in College of Nursing, SNU」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인센터, 간호학박물관 등의 간호대학 내 주요 시설 견학이 이어졌다.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견학을 끝으로 방문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 최고의 대학으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며, 인도네시아의 University of Muhammadiyah Yogyakarta는 인도네시아 전체 대학 중 4위로, 사립대 중에는 최고의 대학으로 꼽힌다.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학생교류 2017학년도 하계 단기연수: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간호대학 학부생 6명(권재현, 어윤수, 이제희, 이지선, 차혜전, 천미량)은 2017년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주 동안 미국의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 Undergraduate Summer Program으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전반부 첫 2주 동안은 다양한 보건 관련 주제로 구성된 Global Health 강의를 듣고, 이후 2주 동안에는 University of Illinois Hospital & Health Sciences System에서 실습을 하였다. 모든 연수 참가자들은 논문 리뷰와 견학, 그리고 토의를 통해 간호학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지 병원에서 간호사들

과의 교류를 통하여 미국의 임상 환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각자 진로에 대해 더 고민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고 실습하며 각국의 간호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과 외 시간에는 함께 관광도 하며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9월 8일(금)과 9월 11일(월)에는 연건캠퍼스에서 국제교류 보고회를 개최하여 하계 단기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선후배 및 동기들과 함께 연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소식 04

국제교류 - 2017학년도 하계 해외단기연수 후기

2017학년도 UIC 연수생 권재현, 어윤수

간호대학에 입학한 이후 줄곧 미국 하계 연수에 참가하고 싶었다. 그러나 1학년이나 2학년 때에는 간호 관련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한국에서도 병원 실습을 해보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공지식과 3학년 1학기 병원 실습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연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3학년인 올해 지원을 하게 되었다.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Nursing은 미국 최초의 간호와 조산 분야 발전을 위한 WHO 협력센터이며, 미국 내 간호대학 중 26년 넘게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unding 4위를 기록하고 있다.

Global Health 강의를 2주간 들으며 다양한 국제보건 주제에 대해 배우고 토의하며, 이후 2주 동안은 Clinical observation과 Conference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소개

[Global Health Lecture]

첫 2주간은 Global Health 강의를 들으며 global health에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배우고 토론할 수 있었다. 첫 주에는 global health의 주요 패러다임을 다뤘는데,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rimary health care, health equity, climate change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주에는 global health에서 중요한 세부 주제들을 다뤘는데,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은 global pandemics나 emerging and infectious diseases, global mental health와 같은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Global Health 시간에는 교수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매 시간 해당 주제와 관련된 강연자의 특강도 들을 수 있었다. LGBTQ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에 대한 특강에서는 UIC 젠더와 섹슈얼리티 센터의 Director가 강연을 해주었고, mental health를 다룬 날에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담당자와 간호사가 함께 하였다.

또한 Global Health 시간은 발표와 토론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한 수업이었다. 매 시간마다 한명씩 아티클을 한 편씩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룹별로 각 나라의 보건의로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tobacco, self harm 등 global health에서 중요한 주제를 하나 골라 자세히 조사하기도 했다. 수업 중 한국, 일본, 인도, 미국의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도 오갔는데, 각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주제부터, HIV에 대한 접근이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주제까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Global Health 시간 중 수업과 발표도 의미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경험은 교실을 벗어나 여러 간호·지역사회 현장으로 체험학습을 갔던 시간이었다. Cook County Jail, the Plant, UIC 내 HIV 연구소와 같은 곳으로 견학을 가면서 간호의 범위가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Cook County Jail의 경우 처음 교도소라는 곳에 견학을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수감자들을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간호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고, 교도소가 간호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도소에는 생각보다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시카고의 경우 마약 중독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았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위한 건강관리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교도소는 수감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unit이 나뉘었으며, 지속적으로 의료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간호사들이 unit에 상주했고, 여러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의 재활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ook County Jail 견학을 하면서 수감률이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미국에서 교도소는 건강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며, 여기서 간호는 수감자들이 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linical Observation & Conference]

Global Health 수업 후 2주간은 University of Illinois Hospital에서 실습이 진행되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병원에서 실습이, 10시부터 1시까지 교실에서 대학원생 강사와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병원실습 시간에는 학생 2-3명씩 그룹을 지어 매일 다른 병동에서 실습을 하였다. 매일 새로운 병동에서 실습하다 보니 산부인과 병동, 회복실, 중환자실 등 다양한 세팅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미 경험해본 병동도 있었지만, 한국에는 없거나 아직 실습 시간에 돌아보지 않아서 새롭게 경험한 병동도 있었다. 실습을 돌았던 병동 중에서는 수술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다. 로봇이 보조하는 전립선 절제술을 보았는데, 로봇수술을 볼 수 있어 너무 신기했고, 수술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료진들이 협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병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관찰 위주의 실습을 하였다. 미국 병원을 관찰하면서 한국과 환자 특성이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다. 히스패닉이 많아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환자를 종종 볼 수 있었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경우 원격으로 통역사를 연결하기도 하였다. 질병의 특성도 좀 달랐는데, 흑인 인구가 많으니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sickle cell disease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상당히 많았고, 응급실에서도 EMR에 기저질환으로 표시되는 등 sickle cell disease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비만 인구가 많으니 gastric sleeve를 하러 온 환자도 꽤 많이 볼 수 있었다.

환자 특성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환경의 차이도 관찰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였다. 일반 병동을 기준으로 간호사 한 명당 12명이 넘는 환자를 간호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Hospital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3-4명의 환자만 간호하면 된다. 대신 식사, 체위보조, 대변과 소변량 측정도 간호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간호사 스스로도 자신이 한 환자의 case manager이라는 인식이 잘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의 질문에 개방적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언제나 질문을 격려했고, 실습학생들이 오면 자신이 일하는 병동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실습이었다.

10시부터 1시까지는 교실에서 대학원생 강사와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컨퍼런스 시간에는 다양한 발표를 준비하였다. 실습을 경험했던 병동에 환자 한명을 선택하여 발표하는 patient presentation,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간호과정을 적용해보는 case study, 아티클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journal club,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설명하는 final presentation 등을 진행하였다. 모든 발표들은 같이 실습을 했던 스페인, 일본 학생들과 그룹으로 준비하였고, final

presentation은 각 나라별로 준비하였다. 컨퍼런스에서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많은 경우 코멘트나 토론이 부족했고, 그럴 시간도 부족했던 점이다. 발표의 수가 좀 더 적고 보다 많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면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다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영어를 연습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컨퍼런스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내용적으로 배운 것도 많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같이 발표를 준비한 학생들과 친해진 점이다. 그룹으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특히 수업과 실습을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일본 학생들과 꽤 돈독해졌는데, 앞으로도 시카고에서 만난 인연이 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시카고 동창회 선배님들과의 만남

이번 연수 중 시카고 및 근교에 계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선배님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고,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선배님들로부터 미국에 정착해서 살아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미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시카고라는 낯선 곳에서 따뜻함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시카고 투어

시카고의 여름은 흔히들 시카고의 'Best Season' 이라고 한다. 이번 여름도 날씨가 좋았다. 1871년 Great Chicago Fire 이후 계획적으로 조성된 사카고는 도시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는 장소였다. 특히 건축학적으로 인상이 깊었다. 시카고 강을 따라 진행된 시카고 아키텍처 크루즈 투어를 했을 때 가이드의 말로는 시카고 시 차원에서 건축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새로운 고층빌딩 건축 허가 시 주변 건물들과 어울리도록 하게 한다고 한다. 유명한 고층 건물들이 아니어도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아서 걷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걷는 것을 즐기게 될 것 같았다.

단체로 Chicago city pass를 구매하여 Field museum, Shedd aquarium, Museum of Contemporary Art, Willis Tower Skydeck, John Hancock Tower 360 Observatory 등에 방문하였다. 시카고에 도착한 주에 Taste of Chicago 축제도 열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또한 스페인 학생들의 제안으로 한국, 일본, 스페인 친구들 모두 함께 해변으로 놀러가기도 했다. 수업이나 실습이 없는 주말 아침에는 시카고 강가를 따라 조깅을 나가기도 했다. 또한 Millennium Park에서 화요일 저녁에 상영한 La La Land도 보고, Navy Pier에서 수요일 저녁에 불꽃놀이도 보고, Lincoln Park Zoo에서 동물들도 보았는데, 이 모두가 무료였다. 시카고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좋았다.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이다.



간호대학 소식 05

융합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

2017년 5월 16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융합 간호인재 양성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이 개최되었다. 국민건강보험운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연자로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건강

보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특강에는 간호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150여명이 참석하여 융합 간호인재의 소양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소식 06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17년 8월 11일 합춘원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있었다. 조정숙 간호본부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에서 지난 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하였다. 간호대학 학생 실습과 관련하여 프리셉터십 제도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상호간의 협력을 다졌다.



간호대학 소식 07

2017학년도 하계 간호대학 교수 Workshop

2017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2017학년도 하계 간호대학 교수 Workshop이 일본 홋카이도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이전 추진 경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과 2017학년도 4학년 종합실기시험 모듈개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7월 5일에는 홋카이도 대학을 방문하여 학술교류 및 상호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8

제 71회 후기 학위수여식

제 71회 서울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이 2017년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38명, 석사 1,023명, 박사 607명 총 2,468명이 학위를 수여하였다.

학위수여식 축하 연사는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가 맡았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사회

공헌 협동조합 설립 등 다양한 공헌활동을 실천해온 남정훈 학생(사회교육과)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간호대학에서는 학위수여자를 비롯하여 간호대학 부학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제 71회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는 간호학 학사 7명, 간호학 석사 10명, 간호학 박사 8명이 학위를 수여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9

직원동정 행정실 소개

○ 최명선 행정실장

안녕하세요. 2017년 7월 1일부터 간호대학에서 함께하고 있는 행정실장 최명선입니다.

행정실 내의 모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 선생님들이 각자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연구와 학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간호대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관악캠퍼스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선 서무 선임주무관

안녕하세요. 서무행정실 김기선입니다.

2017년 9월 25일자로 간호대학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법인회계 및 간접비 예산편성, 결산, 기회 및 대외교류 관련 업무, 보수, 연말정산, 원천징수 업무, 일반서무 업무, 실험·실습



기자재 물품구입 관련 업무, 연구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규호 사회복무요원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안규호입니다.

2017년 7월 21일부터 간호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시설물 예약을 비롯한 행정실내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간호대학에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대학 소식 09

직원동정 조교 임용

2017년 7월 1일 간호대학에서는 모아정신간호학 조교로 유영민(15졸) 졸업생을 임용하였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2017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2017년 5월 11일 Dr. James Buchan (Queen Margaret University)을 초청하여 「Nursing Workforce Policy Questions and Answers」이라는 주제로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통해 영국의 간호인력 정책, 특히 최근에 영국 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에서 진행된 Nurse Safe Staffing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결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6월 21일에는 Dr. Vicky Kent (Towson University)를 초청하여 「Community Health Nursing Clinical Education in the USA: Past, Present & Future」 주제로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약 60여명의 대학원생과 교수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여 실습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7월 17일에는 최신 경향의 연구 디자인 및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Duke University의 정신희 교수를 초청, 간호과학연구소 통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이 진행 중인 연구의 통계방법 및 분석에 대한 개별상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실험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통계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어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되었다.

다가오는 11월 3일에는 교내 대학원생 및 학부 학생들에게 인류학적 연구방법과 여성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증진시키고자, Dr. Laura C. Nels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을 연자로, 「한국유방암 여성에 관한 문화기술지적 이해」를 주제로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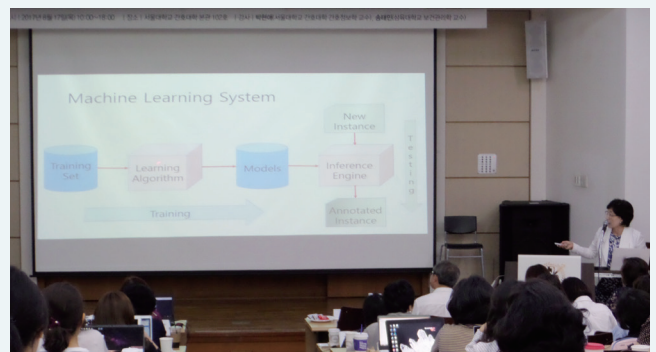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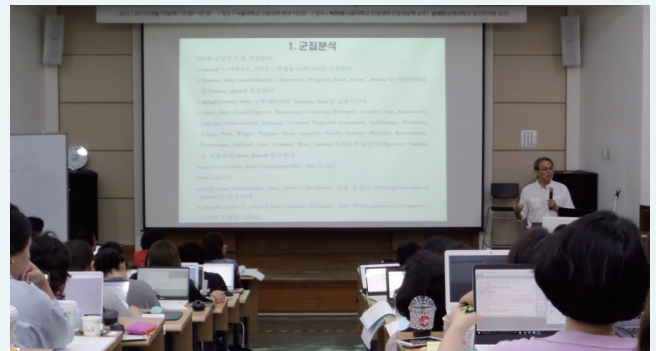
7월 17일 「Experiment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in Health Sciences」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제2차 보건의료 및 간호 빅데이터 워크숍: 빅데이터 분석기법

간호과학연구소의 국제화산학협력센터에서는 2017년 2월 8일 개최한 「보건의료 및 간호 빅데이터 활용 워크숍」에 이어 8월 17일 「제2차 보건의료 및 간호 빅데이터 활용 워크숍: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내 주요대학 교수, 대학병원 교수, 임상 간호사, 학생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강 의 내 용	강 사 (소속)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개요	박현애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군집분석(Clustering)이론 강의 및 활용 사례 실습	송태민 교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이론 강의 및 활용 사례 실습	송태민 교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
연관규칙(Association Rule)이론 강의 및 활용 사례 실습	송태민 교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
신경망모델(Neural Network Model)이론 강의 및 사례 실습	박현애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이론 강의 및 사례 실습	박현애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8월 17일 「제2차 보건의료 및 간호 빅데이터 활용 워크숍: 빅데이터 분석기법」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2017년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

2017년 하반기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준비한 수요학술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신 지견 뿐 아니라 간호영역에서의 IT활용, 피부과학, 죽음 그리고 완전한 신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연자를 모시고 9월 6일부터 11월 22일 까지 총 5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도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발표 주제	연자/소속
9/6	Data-driven Digital Healthcare	배영우 대표 (주)아이메디신)
9/20	피부미용과 피부과학	박경찬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10/11	Somatics: getting my body back (잃어버린 몸길을 찾아서)	김정명 교수 (명지대학교)
11/8	간호사를 위한 로봇, 첨단 IT 시스템	송영애 팀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22	죽음 앞에 선 인간	손영순 까리파스 수녀 (메리포터 호스피스 영성연구소)



9월 6일 수요학술세미나 - 「Data-driven Digital Healthcare」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및
대한질적연구학회 15주년 기념학술대회

2017년 11월 4일 대한질적연구학회 15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와 대한질적연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선 초대회장 퇴임 기념으로 준비한 이번 학술대회는 '질적연구에 대한 다각적 접근(Multiple Approaches to Qualitative Research)'을 주제로 현상학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 및 언어학적 접근에 대한 주제 강의와 이명선 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대학원생 학술모임 발표회

간호과학연구소는 대학원생의 간호학문 탐구를 지원하고 연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2017년 3월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사업에서 5개의 학술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 학술팀의 9개월간의 학술모임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결과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12:00 ~ 13:00

- 장소 : 간호대학 본관 408호

2017년 대학원생 학술모임에 선정된 5개의 학술팀은 다음과 같다.

전공	구성원	학술 모임명
지역사회간호학	김은주, 김다은, 김향, 사공혜, 배소영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한 간호학 연구
성인간호학	이재경, 김지연, 김하나, 정수정, 유영민	건강한 뇌를 행복하게 연구하는 사람들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이진선, 정수용, 송민경, 방은경, 구태형	보이지 않는 간호의 시각화
성인간호학	이경은, 임승화, 서지영, 서혜연, 김혜숙	질적자료분석 모임
성인간호학	이보라, 우윤정, 이선민, 신미정, 김은지	최신 감염관리 격리지침의 체계적 문헌고찰

학부 소식 01

2017학년도 제 26대 학생회 「Sensation」 활동

간호 인재 양성의 요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모두가 학업에만 전념하느라 삭막하게 학교생활을 보낼 것 같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다채롭게 해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바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간호대학 학생회이다. 제 26대 학생회 Sensation은 작년 11월 30일부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학생들과 함께 달려왔다.

개강을 맞아 다소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만난 박광훈 학생회장은 학생회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묻자 별다른 고민 없이 이렇게 표현해주었다. “저에게 학생회는 산소와 같아요. 학생회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집행부원에서 시작해 어느덧 2년 가까이 학생회에 몸담고 있는 박 학생회장에게 학생회는 어느덧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

“학생회는 사랑입니다.” 김경균 1학년 대표는 학생회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1학년이기에 많이 놀고 싶기도 하고 매번 연건캠퍼스에서 열리는 회의와 여러 업무에 어려움을 느낄 법도 한데, 그러나 그는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 임하고 사랑으로 즐기게 된다고 말했다.

부학생회장인 필자 역시 학생회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살펴보면 학생회 일은 보수가 전혀 없고, 상당한 개인시간 투자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어떻게 보면 ‘바보들’이나 하는 활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호대학은 다른 단과 대학과는 무언가가 있다.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교수님들과, 대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내 어디서든 찾아보기 힘든,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기에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잃는 것이 많음에도 여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료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은, 동료들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간호학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 26대 간호대학 학생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느 해보다 열정적으로 학생들과 함께했던 Sensation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식사업

4월과 6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간식사업이 있었다. 올해에



는 연건캠퍼스 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악캠퍼스에서도 진행되었으며, 회차별로 각각 1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2. 교학간담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운 점 및 건의할 점을 학교에 알리고, 교수자-학생 간 열린 소통의 자리가 되는 교학간담회가 간호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여러 건의사항이 전달되었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3. 선배와의 만남

병원 실습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임상 지식은 한계가 있고, 학교차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특강은 대부분 고년차 선배들이 대부분이어서 졸업 후 바로 마주하게 될 병원의 모습을 알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간극을 메워보고자 올해에는 학생회에서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들을 직접 초청하여, 각 병원별 특징과 실제 업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였다.



4. 학사과정 홈커밍데이

간호학과 학부 커리큘럼상 1학년 수업의 대부분이 관악캠퍼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선후배간 교류의 기회가 타과에 비해서 매우 적고 실제로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악캠퍼스에서 1학년 학생들이 선배들을 초청하는 행사인 홈커밍데이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소풍 형식으로 진행되어 버들골에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및 식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선후배가 서로 더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혜화경찰서장 특강 및 학내 몰래카메라 점검

혜화경찰서장 및 여성청소년 계장 등 혜화경찰서의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방문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주셨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순 범죄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술강의 및 실습, 호신용품 증정იდ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며, 특강 종료 후에는 경찰서 직원분들과 학생회장단의 강의실 및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2학기 개강총회

2학기 개강을 맞아 전 학년, 다양한 학번으로 구성된 70명가량의 학생이 모여 개강을 기념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로 인근의 장소를 대관하여 간호대학 학생들만 모여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며, 평년보다 매우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7.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하는 연건바자회

현재 간호대학 내에 산재한 문제들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교수님들과 학부생, 대학원생이 기증한 물건과 학생회에서 준비한 먹거리가 판매되었다.

행사 장소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방문하여 격려 및 먹거리를 함께 즐겨주셨으며 학부생, 대학원생, 병원 임직원 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당일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학내 문제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8. 반 대항 운동회

반 제도가 생긴 이래로 매년 이어져 온 운동회가 올해에도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주말에 진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다채롭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와 함께 모두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원고작성 : 제 26대 간호대학 부학생회장 고승훈〉

학부 소식 02

2017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개최

2017년 5월 26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대학 학부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가 개최되었다. 3학년 2학기 및 4학년 1학기에 걸쳐 「간호연구실습」 교과목을 통해 시행된 연구결과를 각 조별로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남주 학과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최스미 학장과 Sunghee H. Tak 간호과학연구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교과목 담당 교수인 김정은 교수와 최스미 학장, Sunghee H. Tak 연구소장, 정재원 부학장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연구발표회 결과, 대상에는 「간호대학 실습생들의 DISC 성격/행동유형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양상 및 대처

방식간의 관계 파악(장수연 외)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으로 「S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 유형별 전공 선택계기, 진로정책 감, 임상지원 희망여부에 대한 연구(김지현 외)」, 「한국과 미국의 의학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와 역할수행 비교(최하영 외)」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월경주기 이상을 경험한 대학생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박윤서 외)」, 「노인과 간호대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가유정 외)」, 「건강신념모델을 바탕으로 관악학생보건소의 건강검진 참여도관련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박조아 외)」가 선정되었다.



학부 소식 03

동아리 탐방: 다소니

간호대학 15학번 김혜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봉사동아리 '다소니'입니다. 다소니란 사랑하는 사람의 옛말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애정을 봉사로 드러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2006년에 간호대학 학생들이 모여 만들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간호대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소니의 주된 활동은 '웃는 손' 프로그램입니다. '웃는 손' 프로그램이란 노인들의 기초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강교육, 혈

압·혈당 체크 및 건강 상담, 손·발·외이도 관리, 치매선별검사 등의 활동들로 이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소개하는 종로구의 지역 사회 건강 향상을 위하여 노인 복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만 봉사가 이루어졌으나 2016년부터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웃는 손'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히 저희의 봉사활동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센터 측과 연

계를 통해 더 많은 지지와 자원을 활용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웃는 손’ 프로그램 이외에도 수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들의 눈’ 갤러리와 2016년부터 인연을 맺어 성인시각장애인의 예술 프로그램인 ‘힘’ 프로그램의 서포터즈로 참여하거나 장애인 관련 행사 진행 보조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치매알리기 캠페인에 스태프로 참여하거나 ‘KB 국민건강 총명학교’의 서포터즈로 참

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발굴에 도움을 주고 서포터즈로 참여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총명학교는 2016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정하는 치매극복선도 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다소니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뿌듯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 혈압계와 혈당계 사용법, 건강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간호학 실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소니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의 건강향상을 위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 소식 04

학생 이야기 ① - 교직이수를 선택하기까지

간호대학 14학번 신현경

간호대학에는 사범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직이수라는 제도를 통해 보건교사 자격증(2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직이수란 사범대에서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교직과목을 듣는 제도인데요, 간호학과 졸업생 중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보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직이수 신청은 2학년 진입 시 받으며 정원은 학년 당 전체 인원의 10%이며 신청자 중 학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교직이수를 신청하게 되면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

점, 교육실습 4학점, 전공필수 3학점의 총 25학점을 추가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교직이수를 신청하면 간호학 외에 공부해야할 것도 많아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교직이수를 통해 다른 학문을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또한 저의 고등학생 시절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 친구들이 저에게 공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성장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꿈꿔온 간호학과에 진학한 후에는 간호학과 교육학



이 사람을 다루고 전반적인 케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두 학문을 배우게 되면 간호사로서 여러 사람을 대할 때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고 싶었고 제가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교직이수 신청 후 학기 중엔 간호학 전공에 몰두하고

방학에 계절학기뿐만 교직과목을 들으며 힘들고 버겁기도 하였지만 특히 아동간호학과 정신간호학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도 많아 흥미롭고 학생간호사로서 하는 중재에 자신감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실습뿐만 아니라 교생실습을 통해 예비 보건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학부 소식 04

학생 이야기 ② - 나의 교직이수 경험

간호대학 14학번 고우리

교직이수를 하게 되면 근무교육실습, 흔히 말하는 교생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교생실습은 초등학교 1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4주, 총 5주 동안 진행되는데,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서울사대부초로 실습을 나가고, 중·고등학교는 서울사대부중이나 사대부고 중에서 학교에서 정해진 기관으로 나가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생실습을 나가기도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생실습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사대부초로 실습을 오다 보니 한 학급당 교생이 7명 정도씩 들어가게 되고,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교생 한 명당 한 모둠씩을 배정해 주어서 그 친구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1학년 반에 배정되었는데, 1학년 학생들은 엄마, 아빠와만 상호작용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 갓 학교라는 체계 안에 발을 들인 아이들이어서 사건사고가 많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이후부터 아이들은 명찰을 가리면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물어봤고, 어떻게든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색종이 학을 접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줄줄 따라다니며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은 교생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나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학생이라며 교생놀이를 하는가 하면, 하교시간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직이수를 해도 중·고등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실습은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우리가 전공수업에서 배웠듯이 아이들이 어떤 과정, 어떤 발달단계를 거쳐서 중·고등학교로 오는지 실제로 살펴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실습 1주가 끝나고, 저는 모교에서 실습을 허가받아 4주간 실습을 나갔습니다. 보건교과 교생으로 갔다고 해서 보건실에서만 업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보건교사도 교감, 교장직까지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여느 교생들과 똑같이 담임반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보건실과 담임반을 오가며 실습을 하면서 담임교생으로서 아침조회와 종례, 청소지도를 맡거나 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도 해 볼 수 있었고, 보건실에서는 보건교사의 업무도 하나하나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모교에서 실습을 하게 되니 교생인 동시에 고등학교 선배로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생들과 더 빨리 친해지고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말, 해주고 싶은 말도 더 많았고, 특히 4주차에는 학생으로 앉아만 있던 교실에서 이제는 교단 앞에 서서 보건수업 시연을 했을 때에는 기분이 더욱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교에서의 교생실습 4주는 고등학교 때 내가 했던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지금의 후배들을 보면서 교사가 되었을 때 지금을 꼭 기억하고 책임감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학생 때 봐오던 학교와 교생으로서 다시 보는 학교는 이렇게 같으면서도 다른데 교사로서 만나게 될 학교는 또 어떨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원 소식 01

대학원생 이야기 ① - 간호사로 거듭나기



모성간호학 석사과정 대학원생 김다은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다 (Hope Jahren, 2016).

천사 같은 신생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나는 분만장 간호사이다. 분만장의 급박한 상황 속에 나의 역할은 다양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내는 나의 대처 능력은 발전했지만, 의사팀과 함께 최선을 다 해도 좋은 결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틀간의 밤번 근무 동안 3명의 사산된 아기들의 사후처치를 한 일, 촌각을 다투며 준비해서 내려간 응급제왕절개수술 시작 직전 태아가 사망한 사례, 산모가 화장실 가기 전에 괜찮았던 쌍둥이가 화장실 다녀온 후 모두 자궁 내 사망된 것을 확인했던 순간, 또는 내 손으로 cardiac massage하며 CPR로 생존한 아기를 부모가 DNR하여 1시간 이내에 하늘나라로 간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찾고자 대학원에 오게 되었다.

대학원을 다니며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분만장 프리셉터를 하면서 대학원들을 한 학기 동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타 대학 출신이고 자대병원 없이 지방 병원에서 실습한 나의 기억은, 4시간마다 V/S, BST, I/O를 체크하고 이송원 역할까지 한 것이다. 6인실 한가운데에서 어색하게 서 있으며 환자분들과 대화하며 라포를 형성하고, 환자분께 직접 물어가며 케이스 스터디를 한 기억이 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더 체계적으로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위험 환자들을 많이 보며, 전국 최고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간호현장에 서서 실습을 한다.

서울대학교의 실습 교육이 이만큼 탄탄하게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각 간호단위마다 현장지도자(프리셉터)와 실습강사님을 배치하여 짜임새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증도가 높다 보니 직접적인 간호의 수행을 해 보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단순도뇨는 몇몇 학생들에게 시켜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마저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안타까웠다. 학생들은 분만을 보고, 제왕절개를 보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았다. 나 또한 간호학생 실습 시절엔 그랬던 기억이 난다. 많은 이야기를 해 준다고 다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또는 업무가 과다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

로 남는다. 나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것이 전달되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교육환경 또한 점점 발전되어 살아있는 현장실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간호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느 병원에 지원해야할지, 어느 파트에 가야 자신과 잘 맞을지,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 잘 버틸 수 있을지'였다. 나의 모교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병원에 합격한 간호사는 나 혼자였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좋은 병원들 중에 어디를 갈지 고민한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고민되는지 공감이 되기도 했다. 내가 가장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이다. "다 버틸 수 있다." 모두가 버틸 수 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일하면서 스스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신규 시절에는 힘들 수 있지만, 좋은 프리셉터를 만나서, 혹은 좋은 주변 동료로 인해, 또 좋은 환자들로 인해 다 버티게 되는 것 같다.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나도 처음에는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이 싫었고 절망했다. 수술과정과 기구도 내 의지와는 다르게 도대체 파악이 되지 않았고, 선배 간호사들이 나를 교육해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고, 치열하게 버텼고, 그러기에 지금은 더 쉽게 이해가도록, 진짜 알고 할 수 있도록 프리셉터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생들은 열의가 넘치며 그 모습이 매우 싱그럽다. 각자의 학생이 가진 그 학생만의 마음의 힘이 나에게 보인다는. 소심하고 예민하면 그만큼 예리하게 환자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편하게 해 줄 수 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면 그 에너지가 환자분들에게 전달된다. 조용조용하고 꼼꼼하면, 인증 평가나 병동 메뉴얼 정리를 할 때 병동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이다. 모두가 다 소중한 각자의 특기를 가진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누구든 말이다.

나는 현재 65개월째 분만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순간들을 선물해 주신 환자분들, 나의 부족함을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준 분만장 식구들, 나를 지켜봐주신 수간호사님, 그리고 대학원에서 만나게 된 교수님들과 대학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가족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미치지 않아도 나에게 에너지를 준 수많은 분들 덕분이다.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 나를 만든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든 것에 회의감이 드는 슬럼프도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여기까지 와 있다.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간호하다 보니 얼마 전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간호부 친절 직원으로 수상을 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조금 해 하지 않고 묵묵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금처럼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우거진 나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시시각각 쏟아지는 많은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하기 위해 발바닥에 불나게 뛰어다니며 진심으로 간호하는 모든 간호사분들께 존경을 보낸다.

대학원 소식 01

대학원생 이야기 ②

간호과학연구소 지원 학술모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간호학 연구

지역사회간호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김은주

바야흐로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이미 많은 간호 과학자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향후 그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이죠. 평소 빅데이터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쁜 것을 핑계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호과학연구소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어,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연구방법론을 함께 학습하며 각 분야별 연구주제에 따라 실증적인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변의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취지에 공감한 4명의 박사과정생, 2명의 석사과정생이 모여 팀을 이루어 신청을 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학술모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확인한 그 순간이 기억나네요. 떨어질까 은근슬쩍 걱정했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메일 한 통에 기분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승전보를 알리듯 신이 나서 팀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학술모임은 자료집 발간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학습할 문헌을 선정하고 자료집을 꾸려 본격적으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헌을 통해 근거 중심 보건의료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과 간호 분야 빅데이터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원 분석하여 관심 주제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자료원을 탐색했습니다.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을 학습하고, 빅데이터 연구 시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인 집담회를 통해 빅데이터에 대하여 공부하는 한편, 분야 별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노인 분야에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직업건강간호 분야에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술모임을 하며 가장 좋은 점은, 함께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를 하다보면 자칫 나태해지기도 하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힘을 내게 됩니다. 팀 분위기가 좋아 서로 다독이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빌려 좋은 기회를 주신 간호과학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원 소식 02

2016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0명)

김미경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회복탄력성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미숙	조기 위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삶의 질 관련 요인
남기선	불안장애환자의 항불안제 복용 경험과 남용 요인
조성희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한 위내시경 대상자들의 검사 전 불안 정도와 불안 관련 경험에 대한 연구
이경순	방한 중국 의료소비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정보탐색 - 미용성형 의료관광 소비자를 중심으로 -
이은주	수술 후 암 환자가 인식한 간호의 질과 통증, 불안,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안윤희	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건강상태 및 건강영향요인
강하나	혼합연구방법론을 이용한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돌봄의 의미
이성현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과 임종간호태도
최우선	HIV 감염인이 경험하는 낙인이 우울과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 박사(8명)

임승화	이분척추 환자의 질병 경험: 온전한 자기 지켜내기
이주연	Transtheoretical model 기반의 고지혈증 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평가
안신애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안전을 위한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유주연	소아암 환자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도구개발
이지현	중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모바일 정서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
장형은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에 따른 병원 간호사의 건강과 안녕
고희성	정신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초기성인기 대상자를 위한 이야기치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고하나	지역사회거주 당뇨병 노인환자를 위한 건강코칭기반 자기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학원 소식 05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Robots and Ambient Intelligence (2017.6.28.~7.1.)		
Simulation to Assess User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a Bedside Robot (Poster Presentation)	이형숙(간호정보학 박사과정) 변아정(간호정보학 석사수료)	이지산(의료정보학 박사수료) 유형주(간호정보학 석박통합)
GKNF 2nd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 Advances in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2017.7.13.~7.15.)		
Association of Weight Control Behaviors to Body Mass Index in Korean Adolescents: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Poster Presentation Award)	여지영(아동간호학 박사과정) 한수연(아동간호학 박사과정) 황지혜(아동간호학 박사과정)	
Development of Smartphone App "Healthy Kids" for Children's Weight Control with Their Parents and its Usability Test (Poster Presentation)	변아정(간호정보학 석사수료) 박미화(간호정보학 박사수료) 이지산(의료정보학 박사수료)	
Analysis of Recent Trends in Health IT through Twitter Data (Poster Presentation)	이지산(의료정보학 박사수료) 송혜림(간호정보학 석사수료) 박미화(간호정보학 박사수료)	이형숙(간호정보학 박사과정) 홍영주(간호정보학 박사과정) 변아정(간호정보학 석사수료)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care and Life Science Research (2017.6.17.~6.18.)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Behavior and Health Related QOL in Community-dwelling Elder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 Secondary Analysis (Poster Presentation)	이유미(성인간호학 박사과정)	
The Second IEEE/ACM Conference on Connected Health: Applications, Systems and Engineering Technologies (2017.7.17.~7.19.)		
Possibility of Gamified ICT Applications for Young Elderly (Poster Presentation)	유형주(간호정보학 석박통합) 이혜연(간호정보학 박사과정)	변아정(간호정보학 석사수료) 이지산(의료정보학 박사수료)
Method for Selection of the Best Application for Women's Health: Health Navi Ladies (Poster Presentation)	이지산(의료정보학 박사수료) 변아정(간호정보학 석사수료) 유형주(간호정보학 석박통합)	
The 16th World Congress on 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Precision Healthcare in Health Informatics (2017.8.21.~8.25.)		
Use of HER Data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ime to Fall (Poster Presentation)	정혜실(간호정보학 박사과정)	
APHA 2017 Annual Meeting & Expo (2017.11.4.~11.8.)		
Home Care Service for Mother and Child in Vulnerable Group: An Integrative Review (Poster Presentation)	김다솜(지역사회간호학 석박통합)	

대학원 소식 03

연구지원금 수여

수여자 이름	전공	지원금
정민영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김다은	지역사회간호학 석박통합과정	한마음장학금

대학원 소식 04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 졸업생 중 2017년에 교수로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상자	임용 대학	전공(담당 교과목)
방은주	가천대학교	간호학
양정은	경북대학교	아동간호학
최승혜	세명대학교	미생물학, 약리학

동창회 소식 01

2017년도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17년 4월 12일 오후 4시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대학동창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중국 연변에서 방문한 유숙자(59졸) 전 회장, 최스미(80졸) 모교 간호대학장, 이재주(65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지난해 동창회에 장학금을 기부한 신정희(79졸), 이송희(50졸), 이선옥(73졸), 오세영(70졸) 동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네 명의 재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임난영(67졸) 전 한양대 교수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4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안정적인 기반을 닦은 양광희 회장은 “동문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주혜주(77졸) 동문의 감칠맛 나는 사회로 막을 연 3부 「동창의 날」 행사는 임영숙(66졸) 동문의 독창, 75년 졸업생들의 홀라춤, 그리고 재학생 댄스팀의 흥겨운 공연으로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였다.



동창회 소식 02

2017년도 동창회 「대표자의 날」 행사

2017년 7월 19일 오후 4시 30분 간호대학 본관 102호에서 2017년도 동창회 「대표자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임난영(67졸) 신임 동창회장은 “본교의 도움으로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만큼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창회 일을 맡아 공원의 벤치 같이 편안하고 화목한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행사를 시작하였다. 각 기 대표들과 기 이사 및 동문 60여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고 본교 교수인 김정은(77졸) 동문의 4차 산업 혁명과 로봇 케어에 대한 유익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강 이후 각 기 대표자들의 소개 및 발언이 있었으며,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선배배간의 돈독한 정을 다지며 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동창회 소식 03

2017학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2017년 8월 29일 동창회 교육연구재단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2학기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11명에게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총 820만원의 장학금을 모교 학부생 6명, 대학원생 5명(총 11명)에게 지급하였다. 수혜 내역 및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구분	성명	장학금액
최애옥(50졸) 장학금	박사	유수영	1,000,000
임난영(71졸) 장학금	학부	장은영	1,000,000
이송희(50졸) 장학금	학부	김혜문	1,000,000
84년 졸업동기회 장학금	박사	정수정	1,000,000
간호대 동창회 장학금	학부	최하영	900,000
김현희(63졸) 장학금	석사	김병희	600,000
이윤경(69졸) 장학금	석사	백승화	600,000
LA동문 장학금	학부	한수지	600,000
57년 졸업동기회 장학금	학부	김예린	500,000
김기주(70졸) 장학금	석박통합	장상운	500,000
임영숙(70졸) 장학금	학부	김채원	500,000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2017년 3월 1일~2017년 8월 31일

동문 (졸업년도)		본교 교수 (졸업년도)	
간호대학 67년 졸업생 일동	김영아(1988)	강자현	김성재(1981)
김종임(1994)	박달이(1978)	윤주영(2002)	이남주
양정운(박사 2017)	유경희(1982)	채선미	최희승
임승화(박사 2017)		탁성희(1990)	황보영(1996)
기타			
한국학술정보(주)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